

김경수 이어 김부겸... 이재명 '계파 화합' 광폭 행보

24일 배석자 없이 만찬...임종석·김동연·김두관 회동도 조율 중 "상속세 완화, 증세 막자는 것...트럼프 국익 위한 행보 우리도 배워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기로 하는 등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잡룡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다. 이 대표는 특히 최근 자신의 경제중심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의 '우클릭' 비판에도 정면으로 맞서는 등 중도확장에 힘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와 김 전 총리가 배석자 없이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갈등 극복 방안을 두고 "지금 당을 책임지는 주류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넓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비명계 인사들과 잇달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회동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또 다른 비명계 대선 후보군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경제중심 정책에 대해 '우클릭'이라

고 비판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중심 정당"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IT 산업의 기반을 만들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이 주장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예로 들며 "집값은 오르는데 (조세) 기준은 유지하니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 셈이 됐다"며 "소득은 늘지 않는데 증세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니 고치자는 것 아닌가.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클릭을 한다느니, 자주 변한다느니 비판한다"며 "세상이 바뀌는데 당연히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바뀌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걸 바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그러나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해 해도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켜 영구집권을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경제 문제에 관한 민주당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는 분명히 낫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00에서 겨우 2600대를 턱걸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3000대를 찍을 것이며, 지금 국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힘은 매일 거짓말만 해서 이 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이 뒤틀려 전혀 알 수 없는데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

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을 불사할 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대화·협상도 망설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다"면서 "우리가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비상계엄 분명한 잘못... 혼란 최소화 중요”

권영세 국회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국민의힘 권영세(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17일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심하지 않겠다”라며 “기각됐을 때도, 인용됐을 때도 엄청난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장원이나 박종근 같은 경우는 증인 내용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신문이라든지 대질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및 재판관을 향한 공격에 대해선 “가족 사항까지 들춰내서 공격하는 부분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당 의원들이 수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만 보고 ‘헌



권영세

재 흔들기”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며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것,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가 됐을 경우에 각 헌법 기관에 보내는 건 맞다”면서도 “국회에 보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은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산자위 소위 통과

대규모 전력 산업 전력망 확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열고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내란·외환 중대범죄자 연금 제한·급여 중단”

문금주,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7일 ‘내란 및 외환 중대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제한하고 내란 및 외환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방 부로부터 내란 주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월 5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군인 또는 공무원이 복무 또는 재직중이 아니라도 행방이 명시된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에 규정된 반란의 죄, 이적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했을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함께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국정농단의 죄를 범



문금주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직무정지 기간동안 보수의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이전 죄를 범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토록 해 법의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배신한 군인과 공무원에게 국가가 경제적 이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의 군인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 국민을 배신한 자들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입구 공인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채권신고공고(2차)

본 주식회사 이스코는 2025년 2월 14일 주주서면특별결의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5년 4월 2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2월 18일

주식회사 이스코(204611-0072793)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동길 12
청산인 이종운

분할청산공고

주식회사 일강전력(“갑”)과 주식회사 에이제스기술(“을”)은 2025년 2월 17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영양)의 일부(경기공사업, 광주-01280호)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하며, 상법 제530조의 2항의 권원의 차를 받아 출자자(신용)의 채무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갑) 주식회사 일강전력(200111-0382930)
광주광역시 서구 풍곡로37번길 8(중앙동)
대표이사 오문근

(을) 주식회사 에이제스기술(230111-0042208)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로 159-1, 2층(다문동)
대표이사 함미경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계재문의
062.227-9600